+

#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라운지 이용객 98% 만족"

광주상의, 라운지 이용실태·만족도조사

사용 목적 휴게공간 회의실 이용 등 순 이용객 수 매년 증가 지역민 큰 호응

광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용산역사 내에 운영 중 인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라운지 이용객 500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객의 97.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개소한 광주·전남·전북 비즈니 스라운지(라운지)는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지역 3개 광역지자체와 9개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의 수도권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 한 곳으로, 광주·전남·전북지역 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광주상의는 매월 2천여명이 오고 가는 비즈니 스라운지 공간의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을 파악 해 라운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매년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9일부터 9월30일까지 진 행된 가운데 라운지 이용객 총 523명이 참여했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이용객들의 대다수 인 97.7%가 '라운지 이용에 만족한다'( '매우 만 족' 69.8%, '만족' 27.9%)고 답했으며, 커뮤니티

매니저 응대 만족도 또한 응답자 전원(100.0%) 이 '만족한다'( '매우 만족' 77.1%, '만족' 22.9% ) 고 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라운지 공간과 서비스 응대에 있어 이용객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다고

라운지를 이용한 목적에 대해서는 '휴게공간 이용(61.6%)'을 위해 방문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 았으며, 이외에도 '회의실 이용(33.8%)', '사무기 기 사용(4.6%)' 등을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라운지를 이용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47.4%가 '지인 소개'를 통해 방문하게 됐다 고답했다.

이어 '용산역 이용 중 우연히 발견(29.8%)', '홈

페이지(7.5%)', '보도자료(4.2%)', '홍보용 리플 릿(3.1%)'순으로 나타났다.

라운지 이용횟수에 대해서는 '월 1-2회' 방문 한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으며, '연 3-5회 (21.8%)', '연 1-2회 (18.7%)'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라운지의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가구 및 조명 교체 등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 부분인 96.0%가 '만족한다'('매우 만족' 64.2%, '만족' 31.7%)고 답했으며, 이어서 '보통이다(3.1 %) '와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1.0%)' 순으로 나 타났다.

서울 용산역사 4층에 위치하고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는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갖춘 회의실 3곳 과사무·휴게공간 등은 물론 업무용 PC와 복합기 등이 설치돼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광주상의 채화석 상근부회장은 "매년 약 2만 여명의 지역민들이 라운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객 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등 광주 전남 전 북 비즈니스라운지가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업인과 유 관기관 관계자들이 라운지 공간 이용을 통해 실 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실 및 라운지 이용을 위한 예약은 홈 페이지(www.gj-jnbiz.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2-796-0007)로 문의하면 된다. /임채만기자

### GICON 지원기업 아름게임즈, 태국 현지 서비스 본격화

'고양이와 스프', ZENALL과 계약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27 일 "2025년 태국게임쇼 (Thailand Game Show 20 25)에서 광주글로벌게임센터 공동관에 참여한 아름게임즈가 태국 게임 퍼블리셔 ZENALL(C TO: Vorawat Chantharaumporn)과 '고양이와

스프: 말랑타운'의 현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 다"고밝혔다.

'고양이와 스프: 말랑타운'은 글로벌 누적 다 운로드 수 7천만건을 돌파한 네오위즈 인기 모 바일게임 '고양이와 스프' IP(지식재산권)를 활 용한 모바일 게임으로 2024년 5월에 한국에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성공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농장 경영 SNG(소셜 네트워크 게임) 장르로, 사랑스러운 고양이들과 농작물을 재배하고 생 산품을 만들며 마을을 꾸밀 수 있다.

강병종 아름게임즈 대표는 "동남아시아 시장 에서 성공적인 SNG 게임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ZENALL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 다"며 "태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ZENALL와 태국과 동남아 시장의 성공을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태호기자

##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옛말… 코스피 상승률 압도적 세계 1위

연초 이후 64% 올라…반도체 대형주 영향 지난달 전고점 돌파 후 연신 신고가 랠리

27일 역사적인 4,000선을 돌파한 코스피의 올 해 상승률은 압도적이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전 거래일 기준 주요 20개국(G20)의 주가 지수 종가를 비교한 결과, 코스피는 연초 이후 64.27% 상승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2,399.49에서 3,941.59로 약 10 개월 사이 1,542.10포인트 올라 G20 주요 지수 중 유일하게 60%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2위인 일본의 닛케이225평균주가의 수익률이 25.98%인 점을 고려하면 코스피의 상승률은 타 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코스피는 지난달 장 중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 면서 연신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9월 10일 장 중 3.317.77까지 오르며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기존 장 중 사상 최고점인 3,316.0 8을 4년여 만에 넘어섰다.

이는 코스피가 장기간 정체의 역사를 겪은 뒤 얻어낸 값진 기록이었다.

이후 코스피의 상승세는 거침이 없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1-4 거래일 간격으로 마디 지수를 갈아치우며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 는 행보를 이어갔다.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2일 3,549.21로 장을 마 쳐 사상 처음 3,500대에 들어섰고, 연휴 직후인 10 일 3,600선을 넘었다.

기준 사상 최고치를 동시에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한 데 이어 3거래일 만인 지난 23일 장 중 3,900 선을 돌파했고, 27일 드디어 4,000선마저 뚫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 모습 /연합뉴스

9월 이후 코스피 수익률은 23.72%, 이달 들어 서는 15.10%에 달한다.

이 같은 상승세 원동력은 반도체 대형주였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에 코스피 시총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스가 '쌍끌이'로 주가를 견인하자 코스피는 무섭 게 오르기 시작했다.

빅테크뿐 아니라 거대 금융 회사들도 인공지 능(AI) 설비 투자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이에 호응하듯 삼성전자가 잠정적으로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도 사상 처 음 영업이익 '10조 클럽'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 되면서 투자심리에 불을 댕겼다. 여기에 국장을 외면해온 개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본 격적으로 '사자'에 나선다면 코스피 상승세가 당 분간 지속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 지난 16일 3,748.37, 20일 3814.69로 장 중·종가 는 대체로 강세 기조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히 우리 리서치센터는 반도체, 조선, 방산, 뷰티, 증권 등의 실적 모멘텀을 긍정 적으로보고 있다"고 말했다.

















+



파나소닉프라자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062)350-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

#### 작년 지역 출생아 수 '희비 교차'

#### 전년比 광주 2.2% ↓·전남 5.1% ↑

지난해 광주 지역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전 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호남 지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 남 8천225명, 광주 6천34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1% 증가했으나 광주는 2.2% 감소했다.

시·군·구별로 광주에서는 북구(1천877명)와 지못하며 저출산 흐름이 이어졌다. 광산구(1천859명)가 지역 출생에 큰 비중을 차 지했고 전남에서는 순천(1천453명)의 출생아 수 가 가장 많았다. 반면 구례 (55명), 신안(81명) 등 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 순이었다.

은 전남이 4.6명, 광주가 4.3명으로 나타났다. 전 남은 전년보다 0.3명 증가했지만 광주는 0.1명 감 소했다. 영광(7.3명), 나주(6.7명), 광양(6.1명)이 높은 조출생률을 보인 반면, 신안(2.1명), 구례 (2.3명)는 낮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전남이 1.03명 으로 세종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광주는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에 미치

전남은 전년 대비 0.06명 상승했지만 광주는 0 .01명 감소했다.

산모 연령대별로는 30대 초반(30-34세) 출산 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 후반과 20대 후반 /안태호기자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



#### 실외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기<del>본수</del>칙

작업장소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②)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